



1 콩알이 살아있는 구수한 청국장.
2 불맛이 느껴지는 찹쌀미 볶음.
3 손님들의 인기 반찬 부추전.

당찬 맛집 을 찾아서

<209> 제주시 노형동 '수덕 밥엔 청국장'

갓 지은 밥알처럼 콩알이 '고슬고슬' 바삭한 식감 입맛 돋는 부추전도 일품

제주 사람들은 예부터 콩을 좋아했다. 여름에 국수에 말아 먹는 차가운 콩국부터 시작해 겨울에는 밥과 함께 먹는 뜨거운 콩국, 여기에 더해 콩죽도 먹었다.

물사람들은 냉국에 소금간을 하지만 제주 사람은 된장을 풀어 맛을 냈다. 물사람들이 흔히 먹는 소금 콩나물국이 제주에서 진한 황토빛의 된장 콩나물국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이렇게 콩과 친숙한 제주지역이지만 된장의 '사촌'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국장 음식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유명 포털사이트 지도 내 장소 검색에서 '제주 청국장'을 치면 고작 20개 남짓한 음식점 이름만 나올 뿐이다. 식도락 천국 제주 치곤 너무 적은 수가 아닐까.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수덕 밥엔 청국장'은 든든한 한끼를 챙겨 먹을 수 있는 도내 몇 안되는 청국장 전문점이다. 김옥자씨가 5년째 식당을 꾸

리고 있다.

청국장과 된장의 차이는 발효 시간에 있다. 된장은 삶은 콩을 사각형의 메주로 만든 뒤 커다란 독에 넣어 쪄내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지만 청국장은 2-3일만 발효하면 먹을 수 있다.

한식진흥원이 발간한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 이야기'는 청국장을 음식이 아닌 보약이라고 소개한다. 청국장 10g 속에는 300억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장까지 살아서 흘러 내려가 변비를 없애고 장의 활동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수덕 밥엔 청국장'의 대표 메뉴는 '청국장고추장 찹쌀미 볶음' '청국장고추장 찹쌀미 볶음'이다. '청국장고추장 찹쌀미 볶음'을 주문하자 그날그날 만든 밀반찬과 함께 부추전이 식탁에 올라왔다. 밀반찬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데 이날은 동초무침이 나왔다. 부추전은 튀기듯 빠르게 부쳐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쫄깃했다. 양념장은 따로 내어주지 않지만 반찬으로 나온 무간장장아찌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간을 채울 수 있다. 김씨는 "과거 칼국수 전문점을 하다보니 반죽에는 일가견이 있다"면서 "부추전만 따로 줄 수 없느냐고 말하는 손님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청국장은 경기도 모 업체가 손수 뜯는 것을 받아 쓰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제주에서도 청국장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특유의 냄새가 나, 냄새가 덜나는 경기도 것을 쓰게됐다고 말했다.

찌개엔 대파와 두부, 김치, 무 등이 들어 있다. 한 국자 퍼올리니 콩알이 마치 갓 지은 밥마냥 고슬고슬 살아 있다. 구수한 맛에 몽글몽글한 콩의 식감이 밥을 절로 부른다. 찹쌀미는 센불에 빠르게 볶아 불맛이 잘 살아 있었다. 빨간 양념에 매우면 어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맵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아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시나 청국장은 밥에 비벼 먹을 때 제 빛을 발한다. 김씨가 담긴 동초 무침과 밥, 청국장, 찹쌀미볶음을 한데 섞어 비벼 먹으니 입이 즐겁다. 어느새 밥한공기를 푹뭇 비워 밥숟으로 향했다. 밥은 무한 리필이다.

'수덕 밥엔 청국장'을 찾는 손님은 대부분 단골이라고 한다. 식사를 하는 동안 여러 손님이 다녀갔는데 매번 주인장과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 김씨는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힘든 와중에도 매번 찾아오는 주는 단골이 있어 그나마 버틴다"며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수덕 밥엔 청국장'은 제주시 정존7길 28에 위치하고 있다. '청국장고추장 찹쌀미 볶음' '청국장고추장 찹쌀미 볶음'은 각각 9000원, '청국장고추장 찹쌀미 볶음'은 8000원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며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휴식시간이다. 문의=064-746-310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영화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얼마 전 사유리의 출산 소식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일본인인 사유리는 한국에서 방송인과 작가로 활동하는 미혼 여성이다. 그런 그녀가 정자를 기증받아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고 그녀의 임신과 출산이 대중들에게 갑론을박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사유리의 출산 뉴스에는 여러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먼저 그녀가 출산이라는 스스로의 행위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행동했다는 점이 읽혔다. TV 화면 속의 사유리는 유쾌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런 그녀가 가볍지 않은 시간들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것을 직접 전했고 구절구절마다 감탄과 존경의 끄덕임으로 출산 소식을 접하던 나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가웃거렸다.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병원에서부터 제지를 당하곤 한다." 그래서 사유리는 한국이라는 제2의 고향을 떠나 스스로 엄마가 되는 일이 가능한 일본에서 출산을 한 것이구나. 저출산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임에도 '여성 그것도 외국인 비혼모의 자발적 출산'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최근 가장 즐겁게 읽면서 본 드라마는 '산후조리원'이다. 최연소 상무이자 최고령 산모인 위경맘 현진,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소설미디어의 셀러브리티인 펄펄맘 은정, 그리고 자발적 비혼모이자 모유 수유를 비롯한 '산모의 기본'들을 따르지 않는 마이웨이맘 루다까지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의 결과 합이 매력적이었다. 엄마라는 일과 나라는 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여성들의 연대는 슬프게도 웃기고 치열하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난한 동시에 눈물 나게 감동적이었다. '나의 삶 속으로' 자식이라는 타인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드라마의 시작일까.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영화 '당신의 부탁'은 32살의 여성 효진이 16살 종육의 엄마가 되기를 부탁받고 선택하는 이야기다. 사별한 남편의 아들인



영화 '당신의 부탁'

종육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고 효진은 고심 끝에 종육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를 포기한다는 거야'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엄마가 된 효진의 삶은 종육의 존재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내가 낳지 않은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사별한 남편의 자식과 매일을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빨래와 설거지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 이상의 책임이기도 하다.

영화 '당신의 부탁'은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선택을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따라간다. 효진을 비롯해 효진의 엄마, 효진의 친구이자 임신부인 미란, 종육의 친구이자 10대 미혼모인 주미 등 영화 속에는 다양한 엄마들이 등장한다. 각자 나이도, 외모도, 성격도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각기 다른 이유로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엄마가 있고 엄마는 서로에게 누군가가 되는 첫 번째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완벽한 엄마로 불리는 은정은 육아 휴직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를 택했다고 자책하는 위경맘 현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한다.

엄마는, 엄마를 선택한 모든 여성들의 위대한 두 번째 이름이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은 언제까지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유리, 엄마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2020~2021 제주시민 제천방문의 해

1박2일 답답하다! 떠나자! 제천여행

제천시 관광미식과 043) 641-6702 | 제천시 제주홍보사무소 064) 900-8077

제천은 코로나 사회전파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매주 화,목,일요일 출발 (11/10부터)

내륙의 제주도, 슬로시티 제천

국내최대의 호수 청풍호와 케이블카

호수에 비친 단풍의 데칼코마니

제주연합패키지 299,000~ (단체버스투어)

가족안심패키지 399,000~ (4~6인 단독행사)

제1일 제천 제주공항-청주공항-임원지-역사박물관-호변 산책-중식(현지식)-청풍호 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육순대교(육순봉)-석식(현지 특식)-숙소

제2일 단양 조식-도담삼봉-천동굴(또는 온달동굴)-중식(단양 마늘정식)-단양강 만천하 스카이라이프-약초출 담그기 체험(약초출 증정)-(제천역-청주공항역 열차 탑승)-청주공항-제주공항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박3일 및 단독행사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굿모닝제주투어 723-3350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늘푸른여행사 726-3344

파랑새여행사 744-1233

FM여행사 702-1950

현여행갤러리 725-0818

●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차량료, 숙박비(4인 1실), 식사 3회 ● 불포함내역 : 기사/가이드 팀 1만원, 호텔숙료(일부 항공편)